아들 軍면제·재산 증식…국민눈높이 통과할까

정홍원 총리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전망

민주 "책임총리 역할 의문 … 철저하게 검증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주목된다.

일단,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 병역의혹 및 부동산 의혹 속에서 자진 사퇴한 만큼, 박 후보자 측에서 '현미경' 사전검증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도 인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전검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온갖 것을 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당장, 정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아들의 병역 문제가 벌써부터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과 정 후보자의 재산 증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 역시 지명 초반에만 해도 무난한 국회 통과가 점쳐졌다가 의혹이 속속 제기돼 낙마로 이어진 만큼, 정 후보자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새누리당 공심위원장 출신인 점을 들어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로 규정, 그가 공심위원장을 맡았던 4·11 총선 당시 공천문제 등도 분명히 되짚겠다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새 시대의 변화를 실현하며 국민,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인지 세심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시간에 쫓겨 검증을 요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의중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박 당선인이 자신이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겼던 인사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2일 이후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일이 오는 25일로 일정이 빠듯한 만큼, 박 당선인 측과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특위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에 7명,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 6명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리실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과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총리후보 광주지검장 때 대대적 준법 캠페인

"광주를 준법실천 모범도시 만들자" 강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미스터 준법'으로 불릴 만큼 교사를 거쳐 검찰에 입문한 뒤 준법을 강조해왔다. 검찰 내부에서의 신망도 이 같은 그의 강직한 성품에서 기인하고 있다.

1944년 경남 하동에서 12남매의 10번째로 태어난 정 후보자의 첫 직업은 법조인이 아닌 교사였다.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낮에는 교사, 저녁에는 성균관대 법대 야간 과정에 다녔다. 이후 1972년 제1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찰에 입문한 그는 주로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 '대도' 조세형 탈주 사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 2차 장영자 사기 사건 등을 맡았다. 대검 감찰부장 때는 '낮술 금지령'을 내려 검찰 내부 술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7월15일 제43대 광주지검장에 취임하면서 그가 강조한 것은 '준법'이었다. 그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지역이 민주화의 성지요, 예향이며, 인정의 고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곳이야말로 법을 준수하는 모범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를 준법 실천의 모범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광주지검장 재임기간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 경찰 등과 함께 대대적인 준법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뒤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때인 지난 2004년 5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시 동기들과 함께 후배들을 위해 용퇴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2월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으로, 공천심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저 같은 보통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중은 보통사람을 중히 여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대통령을)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 책임총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도 신상털기가, 제 느낌으로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지 않나 생각까지 나더라"며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니 젖먹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나더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 애정 유별난 '꼿꼿장수'

김장수 靑국가안보실장 지난달 광주일보 인터뷰

"군내 호남인맥 위축 다시는 없도록 할 것" 밝혀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인선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게 된 김장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국방부 장관을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국방 정책 분야 전문가다.

야전 주요 지휘관과 정책부서의 작전·전략 분야 핵심보직을 거쳐 참여정부 때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 총선 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여의도 정치권에 입성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여길 만큼 지금도 군인정신이 투철하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성안했다. 군 시절부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면서도 업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할 정도로 빈틈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군내 호남인맥으로 분류됐지만 지역이나 임관 출신 등을 차별하지 않아 부하들로부터 두루 존경을 받았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며 다른 사람과 달리 고개를 숙이지 않아 '꼿꼿 장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며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는 본회의장에서 박 당선인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언론에 포착되면서 박 당선인이 신뢰하는 인사라는 평가도 받았다. 당 최고위원까지 지냈지만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재선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소신을 밝히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호남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하기로 유명하다. 지난달 5일 인수위원에 선임된 직후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준장 1차 진급자 중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었던 점을 거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며 "다시는 호남 인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에 대한 애정이 누구 못지 않게 많다"며 새 정부에 대한 광주시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테니스와 골프 등 각종 스포츠에 능하다. 부인 박효숙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으며 아들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인수위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맡아 인수위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장 또는 국가안보실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광주(64) ▲광주일고 ▲육사 27기 ▲1군사령부 작전처장 ▲6사단장 ▲7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방부장관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올핸 제발 철좀들어라!